

경북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 총력... 맞춤형 상품 발굴 박차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부스 운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홍보와 한류드라마 촬영지 연계로 눈길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4일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4(Travel Tour Expo 2024)’에 참가해 경북관광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필리핀 최대 관광 박람회로 300여 개 기관, 9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도와 공사는 경북의 매력적인 관광 특색을 살린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여행사와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북 관광 홍보 및 상담을 실시했다. 오는 9월 27일부터 개최하는 안동국제탈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4일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4(Travel Tour Expo 2024)’에 참가했다. /경북도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와 경북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개별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며 필리핀 방한 여행 수요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관광상품 및 여행 트렌드 자료를 수집했다.

박람회 기간, 메인 홍보 무대에서

‘한국 속의 한국, 가장 한국적인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해 경북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했다. 이어,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나라임을 고려해 인기리에 방영된 한류드라마의 경북 촬영지를 연계 홍보하며 현지 여행사와 개별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장기적인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필리핀 한국문화원과는 현지 관광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필리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며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현지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락소 트래블)와는 경북 관광상품 개발 관련 협업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필리핀은 한국비자센터 개소 및 단체관광객 전자 비자수수료 면제 혜택 등 입국 편의 개선으로 방한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이다”라며 “관광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경북체류 상품을 발굴·확대하여 동남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주군

중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울산 울주군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용자 규모는 총 750억 원이며, 이번 1차 사업은 500억원 상당이 투입된다.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 기업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이차보전금 3%를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11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경남 김해시가 2024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11개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김해방문의 해 테마형 관광코스는 김해의 명소를 총망라해 이동 동선, 여행 목적과 구성원, 성향까지 고려해 전체 11개 코스로 개발했다.

이 중 주요 4개 코스는 ▲김해 첫 방문객을 위한 김해의 명소로 떠나는 ‘첫 방문 코스’ ▲교육과 즐거움이 있는 ‘온 가족 코스’ ▲오감으로 느끼는 ‘로컬여행 코스’ 그리고 MZ세대 문화로 자리 잡은 성격유형지표인 MBTI를 활용한 ▲성향별로 떠나는 ‘MBTI 코스’ 등이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전남교육청

저탄소 녹색급식 400개교로 확대

전남교육청이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급식 실천학교를 400개교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목포대학교에서 학교급식관계자 조리 아카데미 연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학교급식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사업 시행 첫해 80개교로 시작한 탄소중립 실천학교는 지난해 244개교에 이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 운영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안동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개최

안동시는 오는 5월3~7일 개최되는 ‘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어린이날 여휴기간을 맞아 테마파크형 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7개의 랜드로 조성될 축제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놀이 천국을 선보일 예정이다.

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서는 20여 가지의 게임콘텐츠와 연희 공연, 연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포포먼스랜드에서는 집단 참여놀이와 안동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비롯한 차전놀이 대동놀이 관광객 참여형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여수시, 지난해 관광객 2759만명

외국인 관광객 23만명... 8배 증가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도약

여수시는 여수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3년 누적 관광객이 2759만 명으로 2022년 관광객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수 관광 빅데이터 분석’은 시가 매년 관광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매출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외지인 관광객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류한 자료다.

2023년 분석 결과,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2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도약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는 그간 여수시가 7년 만에 중국 크루즈 선사 입학 등 총 5회의 국제크루즈 유치와 적극적 해외 MICE유치 마케팅으로 글로벌 MICE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



국제 크루즈선 ‘실버 위스퍼’ 여수항 입항.

한 맞춤형 유치 행보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50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여수를 찾았고, 다음으로 20~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한 달은 7~8월로 여수가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연령대별 선호 관광지는 20~30대 관광객은 종포해양공원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50~60대 관광객은 오동도, 향일암, 남도·조발도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경향을 보였다.

/여수(전남)=전정진 기자 spirit@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서비스 시행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지원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

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성군, 벼 재배 농가에 ‘월급제’ 추진

최대 210만원까지 가능

경남 고성군이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을에 편중된 벼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을 벼 수매 계획 물량의 70% 내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업인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사업으로,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고성군

있다. 다만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12일까지 농협과 체결한 자체 수매 약정서와 건강보험확인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밀양시, 재해위험개선지구 1367억 투입

2021년~2027년간 4곳에 지원

경남 밀양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재해 예방사업 및 방재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자연 재난에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곳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367억원(국비 683억원, 도비 416억원, 시비 268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단장면 태룡리 일원에 298억원을 투입해 용

포천(길이 4.2km)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을 정비한다. 교량도 새로 만들어 제방 월류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한다.

또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삼랑진읍 검세리 일원에 418억원을 들여 배수로 개선, 저류지 설치 및 배수장 증설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할 때 물빠짐을 좋게 해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검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초동면 검암리 일원에 198억원을 투입해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장을 설치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인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